

제156호(2017. 11. 9.)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

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목 차
contents

- 1. 금년 김장철 가구 소비자 구매 의향 1
- 2. 금년 김장채소 수급 및 가격 전망 8
- 3. 시사점 14

감 수	황윤재 연구위원	061-820-2247	yjhwang@krei.re.kr
내 용 문 의	김성우 연구위원	061-820-2115	swootamu@krei.re.kr
자 료 문 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11.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 979-11-6149-059-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약 Summary

- **김장철 김치 조달은 직접 담그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판김치 비중도 증가 추세**
 - 금년 김장김치 조달 방법 중 김장을 직접 하는 가구의 비중은 65.3%로 작년보다 0.5%p 증가, 시판김치 구매 비중도 13.1%로 작년보다 2.1%p 증가
 -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을 맞출 수 있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 **금년 김장철 배추 구매형태는 작년에 이어 절임배추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절임배추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절임배추 선호도는 52%로 신선배추(48%)보다 높게 나타남.
 - 절임과정의 번거로움(73%)과 시간 절약(22%) 때문임.
 - 신선배추, 무는 도매 및 재래시장, 절임배추는 산지 및 택배를 통하여 주로 구매
- **금년 김장 수요는 11월 하순과 12월 상순, 원재료 공급은 11월 중하순에 집중될 전망**
 - 김장용 배추와 무 수요량 작년보다 각각 8%, 1% 증가
 - 김장 시기는 11월 하순 31%, 12월 상순 32%로 높게 나타남.
 - 김장배추, 무 공급은 작년과 평년보다 많아 가격도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듯
- **금년 김장 배추·무 수급 과잉 우려로 시의 적절한 수급대책 필요**
 - 김장배추, 무 공급량 작년보다 30% 내외 증가 전망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산지폐기, 시장격리, 수매비축 등의 적절한 수급안정대책 실시 계획
- **절임배추 산업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 개선 노력 필요**
 - 최근 절임배추의 세척이나 절임 과정에서의 위생 및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절임배추 생산 규모화와 조직화가 필요하며, 유통시스템 개선도 필요

01 | 금년 김장철 가구 소비자 구매 의향

김장철 김치 조달은 가족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직접 담그는 비중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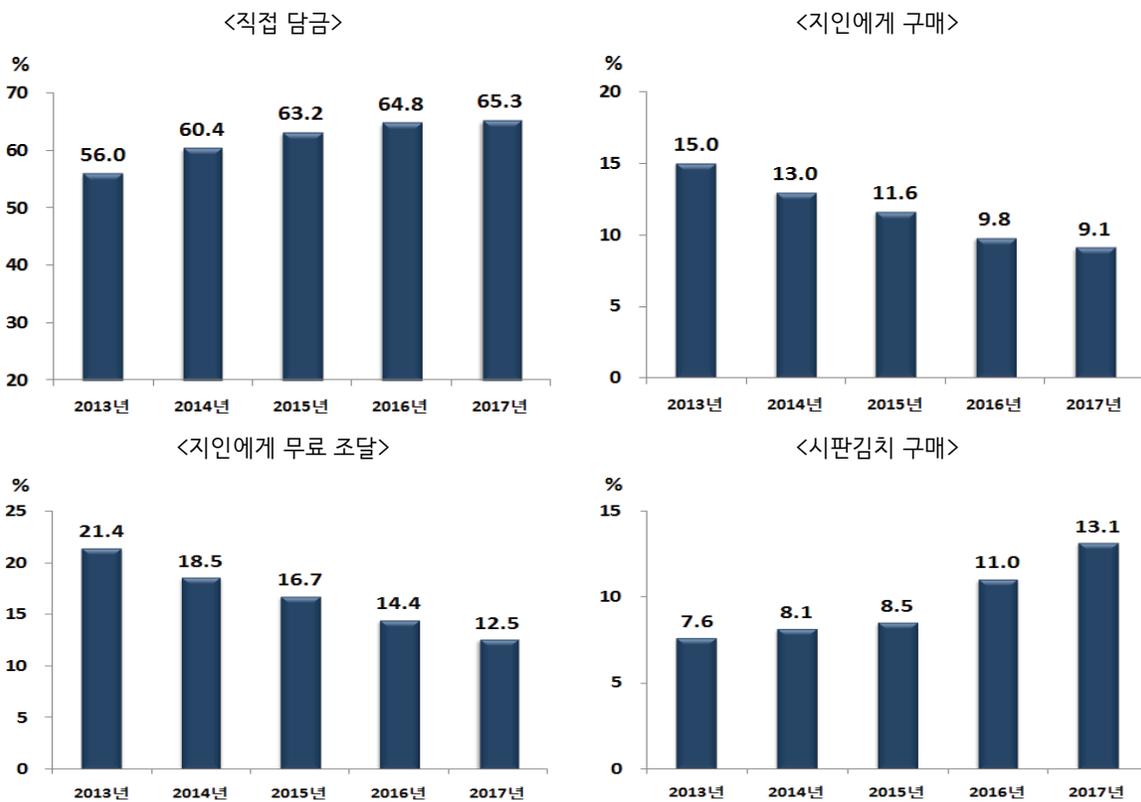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소비자패널(718명)을 대상으로 금년 김장 및 원재료 구매의향, 조달형태, 구매처 등을 조사하였으며, 2017년 10월 19~23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음.

1.1. 금년 김장철 김치 조달형태

□ 금년 김장김치 조달 방법 중 직접 담금과 시판김치 구매 비중이 작년보다 늘어

- 2017년 김장을 직접 담그는 가구의 비중은 65%, 시판김치 구매는 13%로 작년보다 늘었고, 지인에게 구매 또는 무료 조달하는 형태는 각각 9%, 13%로 작년보다 감소함.

<그림 1> 가구 소비자의 김장김치 조달형태별 비중 추이



- 직접 김장을 담그는 비중은 2013년 56%에서 2017년 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유로는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을 맞출 수가 있다(5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판김치보다 원료 품질을 믿을 수가 있어서(30%)’, ‘절임배추, 김장양념(김칫소) 판매 등으로 인해 김장하기 편리해져서(10%)’ 등이었음.
- 지인을 통해 구매하거나 무료 조달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시판김치 구매 비중은 2013년 8%에서 2017년 13%로 증가하고 있음.
 - 지인을 통해 조달 및 구매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는 부모가 고령화되면서 김장을 하지 못하여 직접 담그거나 시판김치를 구매하는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시판김치는 맛과 품질이 균일하고 필요에 따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직접 김장하는 비중이 높아

- 가구 인원수별로 살펴보면, 4인 가구까지는 직접 담금 비중에 큰 변화가 없으나, 5인 이상이 되면 직접담금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김치 소비량이 많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5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인으로부터 구매(19%)하거나 무료 조달받는 비중(3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50대 이상은 직접 김장을 하는 비중이 78% 내외로 높게 나타나는데, 20~30대인 자녀 세대가 50~60대인 부모세대에게 무료로 김치를 조달받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표 1>에서 2인 이하 가구의 직접 담금 비중이 높은 것은 50~60대 부모세대가 2인 가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표 1〉 가구원수별 김장김치 조달형태

단위: %

구분	직접 담금	지인 구매	지인 무료 조달	시판김치 구매	합계
2인 이하 가구	64.5	7.2	13.2	15.1	100.0
3인 가구	60.7	9.6	13.8	15.9	100.0
4인 가구	64.7	10.7	11.9	12.7	100.0
5인 이상 가구	76.8	3.9	11.8	7.5	100.0
전체	65.3	9.1	12.5	13.1	100.0

〈표 2〉 연령대별 김장김치 조달형태

단위: %

구분	직접 담금	지인 구매	지인 무료 조달	시판김치 구매	합계
30대 이하	33.7	18.5	33.5	14.3	100.0
40대	58.8	13.2	13.8	14.2	100.0
50대	76.4	5.6	7.1	10.9	100.0
60대 이상	80.5	3.3	3.9	12.3	100.0
전체	65.3	9.1	12.5	13.1	100.0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직접 담금 비중이 가장 높으며, 고소득일수록 직접 담금 비중은 줄고, 시판김치 비중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낮을수록 직접 담금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직접 김장하는 비용이 포장김치 구매 비용보다 절감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3〉 가구 월 소득수준별 김장김치 조달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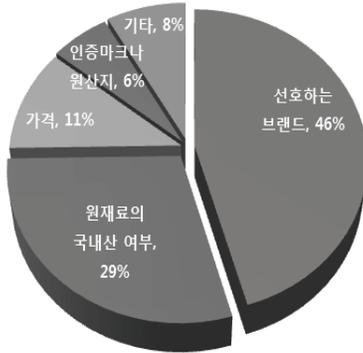
구분	직접 담금	지인 구매	지인 무료 조달	시판김치 구매	합계
300만 원 미만	66.0	7.5	15.3	11.2	100.0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65.4	9.4	12.2	13.0	100.0
600만 원 이상	63.4	9.9	9.7	17.0	100.0
전체	65.3	9.1	12.5	13.1	100.0

□ 시판김치 구매 시 브랜드와 국내산 여부가 중요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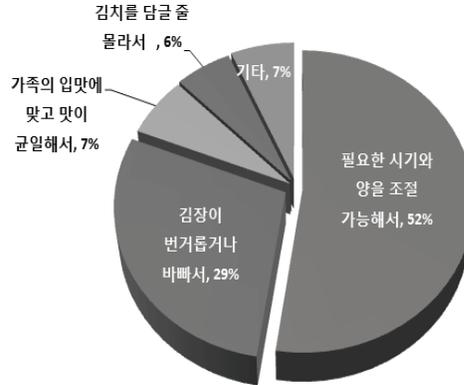
- 시판김치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선호하는 브랜드’가 46%, ‘원재료의 국내산 여부’가 29%로 나타남.
- 그 외 가격(11%), 인증마크(HACCP 등)나 원산지(6%) 등
- 시판김치를 구매하는 이유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 구매가 가능해서(52%)’, ‘김장하기가 번거롭거나 바빠서(29%)’임.

〈그림 2〉 시판김치 구매 시 중요한 사항과 구매 이유

〈 시판김치 구매 시 중요사항 〉



〈 시판김치 구매 이유 〉



□ 김장양념(김치소) 구매 경험 가구는 매우 적어

- 김장양념 구매 경험 가구는 전체 조사가구 중 3%로, 김장양념을 직접 만드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김장양념을 직접 만드는 이유는 ‘가족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가 59%, ‘김장양념에 들어간 재료들을 믿을 수 없어서’가 32%로 나타남.
- 향후 김장양념의 재구매 의향은 여전히 낮음.
 - 기존 김장양념 구매 경험이 있는 가구 중에서 향후에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18%로 작년(14%)과 비슷하게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김장양념을 구매하는 이유로 ‘만드는 시간이 절약되어서’ 42%, ‘김장양념 만드는 과정이 번거로워서’가 32%로 나타났으나, 김장양념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과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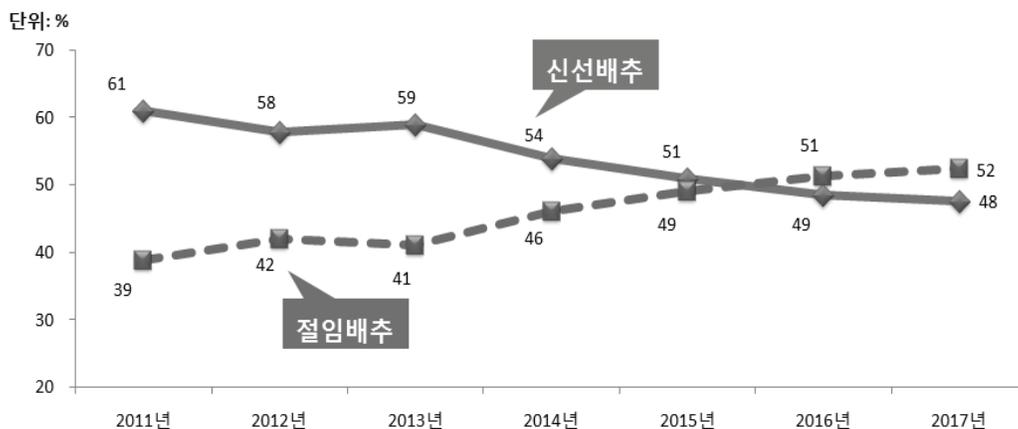
최근 김장철 절임배추 선호도는 꾸준히 상승세

1.2. 금년 김장철 주요 채소류의 구매형태별 선호도

□ 금년 절임배추 선호도는 작년보다 2%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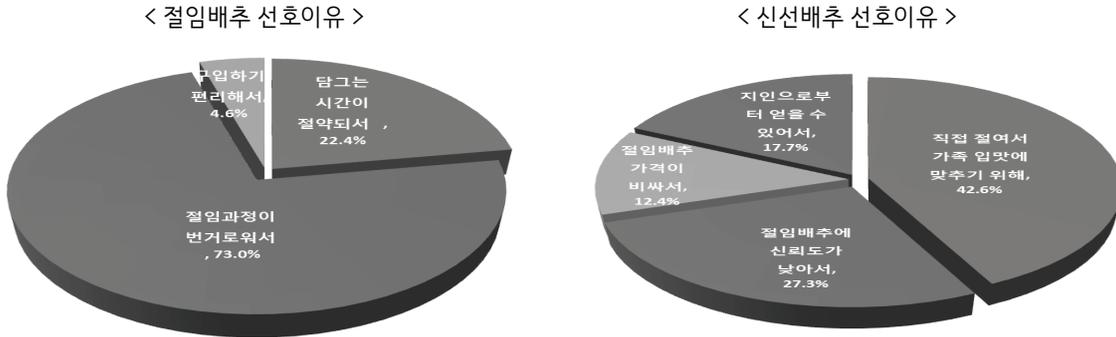
- 김장김치 주재료인 배추의 형태별 선호도는 ‘신선배추’가 48%, ‘절임배추’는 52%로 절임배추 선호도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추이를 보면 ‘절임배추’의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절임배추 비중이 신선배추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4〉 김장배추의 구매형태별 선호도 추이



- 절임배추를 구매하는 주요 이유는 절임과정의 번거로움(73%)과 시간 절약(22%) 때문임.
 - 신선배추를 구매하는 이유: ‘가족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가 43%, ‘절임배추 안전성 관련(가공과정의 위생, 포장 등) 신뢰도가 낮아서’가 27%, ‘부모나 친지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어서’가 18%, ‘절임배추 가격이 비싸서’가 12%
- 절임배추 사용 시 불만사항으로는 ‘절임 염도가 입맛에 맞지 않다’가 44%로 가장 높았고, ‘배추 원료의 품질이 나쁘다’가 20%, ‘김치를 담갔을 때 맛이 없다’와 ‘절임이나 포장상태가 비위생적이다’가 각각 14%로 나타남.
- 건고추와 마늘의 구매형태 조사결과, 고추는 고춧가루 64%, 건고추 35%, 홍고추 2%이며, 마늘은 통마늘 67%, 깎마늘 24%, 다진마늘 8%로 나타남.

〈그림 5〉 절임배추와 신선배추 선호이유



□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절임배추 선호도가 높으나, 맛별이 여부와는 관계없어

- 주거형태가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절임배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거주 형태상 절이는 과정에서의 제약이 많기 때문임.
- 맛별이 여부에 따른 절임배추 소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맛별이 여부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김장철 소비 패턴이 절임배추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주거형태별 및 맛별이 여부에 따른 신선배추와 절임배추 선호 비중

단위: %

구분		신선배추	절임배추	합계
주거형태	아파트	41.4	58.6	100.0
	주택	64.2	35.8	100.0
맛별이 여부	맛별이	47.8	52.2	100.0
	외별이	47.5	52.5	100.0
전체		47.6	52.4	100.0

주: 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상가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값임.

□ 금년 절임배추 도매시장 평균 판매가격은 10kg당 12,000원 내외

- 금년 김장철 절임배추 판매가격은 신선배추 가격 하락으로 작년보다 낮게 형성
 - 절임배추 가격은 신선배추 시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나 가격 등락폭은 신선배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표 5〉 김장철 도매시장의 절임배추 및 신선배추 가격 추이

단위: 원/10kg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절임배추	12,000	16,000	11,000	14,000	12,000	11,000	11,000	13,000	12,000
신선배추	3,119	9,421	2,553	8,153	4,884	3,112	3,621	8,324	3,500

주: 신선배추 가격은 11~12월 평균 가격(상품)이며,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11월 전망치임.

자료: 서울 가락도매시장 대야청과 조사치(10월 31일).

신선배추는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에서, 절임배추는 산지 또는 택배로 구매

1.3. 금년 김장철 주요 채소류의 구매처

□ 신선배추는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절임배추는 산지 및 택배를 통하여 주로 구매

- 김장철 신선배추 구매처는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이 31%, ‘백화점 또는 대형유통업체’, ‘택배 또는 산지에서 구매’가 각각 11%, ‘부모, 친지 등을 통한 무료 조달’이 9%로 나타남.
- 김장철 절임배추 구매처는 ‘택배 또는 산지에서 직접 구매’가 20%, ‘부모, 친지 등을 통한 구매’가 15%, ‘인터넷 쇼핑몰’이 14%로 나타남.

□ 무나 마늘은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고추는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구매 비중 높아

- 김장철 무의 주요 구매처는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이 37%, ‘소매점(인근 슈퍼, 상가 등)’이 14%, ‘대형유통업체(백화점)’가 13%로 나타남.
- 김장철 고추의 주요 구매처는 ‘부모, 친지 등을 통한 구매’가 36%, ‘산지에서 직접 구매’가 25%, ‘부모, 친지 등을 통한 무료 조달’이 13%로 조사됨.
- 김장철 마늘의 주요 구매처는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이 21%, ‘부모, 친지 등을 통한 무료조달’ 및 ‘부모, 친지 등을 통한 구매’가 각각 14%, 12%로 조사됨.
- 시판김치의 구매처는 ‘대형유통업체(백화점)’가 38%, ‘인터넷, 홈쇼핑’ 34%, ‘동네 반찬가게’ 7%, ‘김치업체’ 7%,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 5% 순으로 나타남.

〈표 6〉 김장철 주요 채소류 구매처별 비중

단위: %

구분	신선배추	절임배추	무	고추	마늘
도매시장 또는 재래시장	30.5	3.2	36.6	3.2	21.4
백화점 또는 대형유통업체(이마트, 홈플러스 등)	10.7	11.4	13.4	3.2	10.7
택배 또는 산지에서 직접 구매	10.7	20.1	7.0	25.0	7.6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무료 조달	9.1	4.4	2.1	12.9	13.7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구매	7.5	14.6	2.1	36.3	12.2
소매점(인근 슈퍼, 상가 등)	4.8	3.2	14.1	2.4	6.9
직접 재배	7.5	1.9	2.1	0.8	2.3
임시장터나 트럭상	7.0	1.3	10.6	0.8	8.4
직거래 매장 또는 로컬푸드 매장	4.3	10.1	3.5	7.3	9.2
기타	0.0	0.0	1.5	1.7	1.5
친환경매장(생협, 한살림, 초록마을 등)	3.7	10.8	3.5	4.0	1.5
인터넷쇼핑몰	1.5	13.9	2.1	2.4	3.1
김치공장에 주문 혹은 직접 구매	2.7	5.1	1.4	-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02 | 금년 김장채소 수급 및 가격 전망

2017년 김장 수요는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에 집중될 전망

2.1. 김장철 김장 수요 전망

□ 금년 김장 수요는 작년보다 늘었고,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에 집중될 전망

- 2017년 김장 소비 의향 조사 결과, '작년과 비슷하게 담글 것이다'라는 응답이 55%, '작년보다 많이 담글 것이다' 26%, '작년보다 적게 담글 것이다'는 19%로 나타남.
 - 김장 의향이 많은 이유: '김장비용 하락으로 김치소비량을 늘려서(33%)', '절임배추 등으로 인해 김장하기 편리해져서(30%)', '김치냉장고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18%)', '배추 가격이 저렴해서(15%)', '기타(5%)'
- 김장용 김치의 종류별 비중은 배추김치가 79%, 무김치가 14%, 기타 김치(오이소박이, 갓김치, 파김치 등)가 7% 순으로 나타남.
 - 김장용 무 구매 시 형태별 용도는 김장양념용 53%, 깍두기용 19%, 동치미 12%, 총각김치 11%, 열무김치 3%

〈표 7〉 2017년 김장 의향 변화(작년 대비)

단위: %

작년보다 많이 담글 것이다	비슷하게 담글 것이다	작년 보다 적게 담글 것이다	합계
26.4	55.0	18.6	100.0

〈표 8〉 2017년 김장 의향이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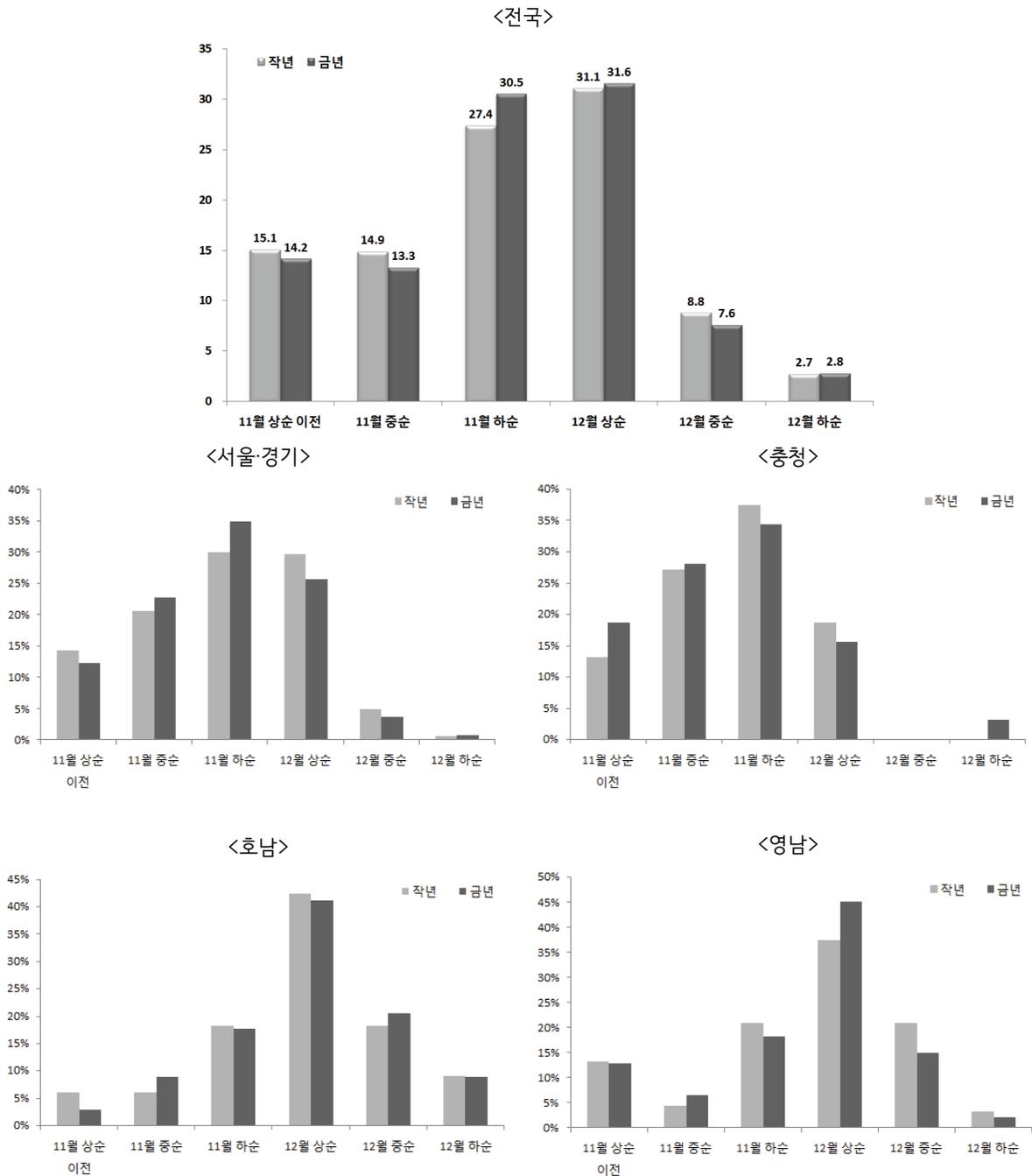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비중(%)
김장비용 하락으로 김치소비량을 늘려서	32.7
절임배추 등으로 김장하기 편리해져서	30.1
김치냉장고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	17.7
배추 가격이 저렴해서	15.0
기타	4.5
계	100.0

- 금년 김장 시기는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이 각각 31%, 32%로 가장 많고, 작년에 비해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와 충청은 11월 하순, 호남과 영남은 12월 상순에 김장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6〉 금년 김장 시기 비교(작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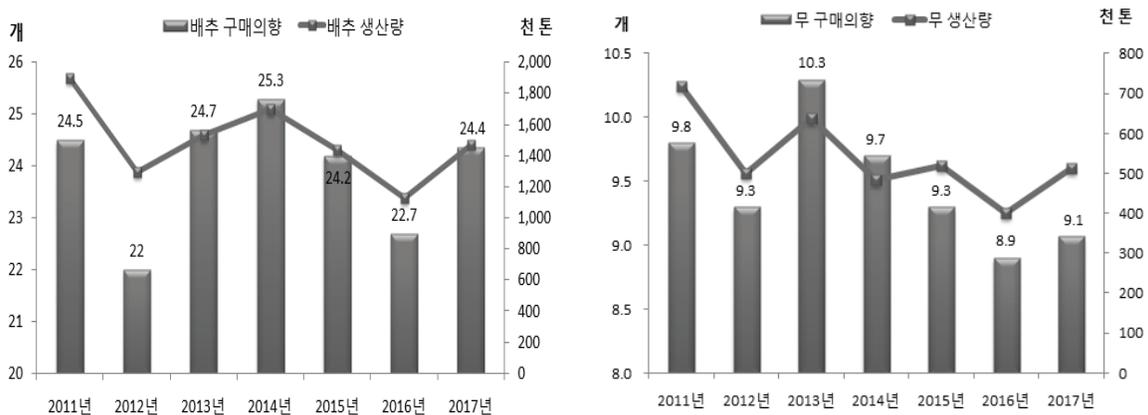
단위: %



□ 4인 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와 무 소비는 작년보다 각각 8%, 1% 증가 전망

- 금년 김장용 배추 포기 수는 24.4포기로 작년(22.7포기)보다 약 2포기 증가하고, 무는 8.8개로 작년의 8.7개보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장철 배추와 무 구매의향은 해당 연도의 가을배추와 가을무 생산량 증감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가을배추, 무 생산량은 작년 대비 30% 내외 증가한 것에 비해 구매 의향은 5% 증가로 변화폭이 적게 나타남. 배추, 무 생산량이 크게 늘더라도 가구 김장소비는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금년 마늘, 건고추 소비량은 가격이 높아 작년에 비해 각각 4%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알타리무 소비량은 작년에 비해 1% 증가하나, 청갓과 생강은 각각 1%, 2% 감소함.

〈그림 7〉 김장배추·무의 구매 의향 추이



2.2. 김장철 김장배추, 무 공급 및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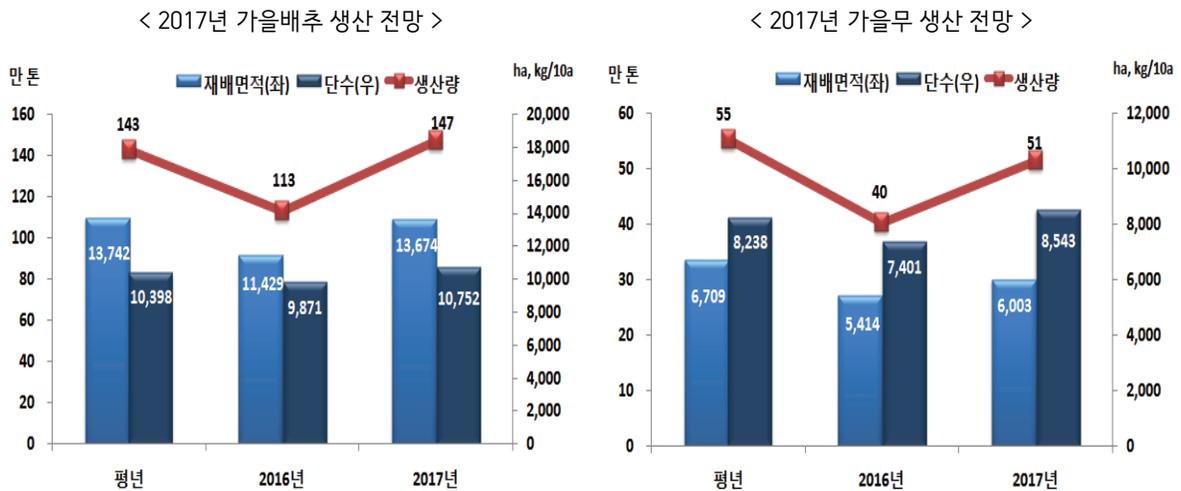
□ 금년 김장배추, 무 공급은 작년과 평년보다 많으며, 11월 중순과 하순 출하비중이 높을 전망

- 금년 김장배추와 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30%, 3% 내외 증가하여 배추가 147만 톤, 무가 51만 톤으로 전망됨.
 - 김장수요가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에 집중되면서, 공급량은 11월 중하순에 집중

□ 금년 김장철 배추, 무 가격은 공급량이 많아 작년 및 평년보다 낮으며, 순별 배추가격은 11월 중하순에 가장 높고, 무는 12월로 갈수록 약보합세 전망

- 올해 김장철 배추 도매가격(상품)은 3,500원/10kg으로 작년(8,320원)과 평년(5,660원)보다 낮고, 무도 5,000원/18kg로 작년(10,350원)과 평년(10,110원)보다 낮을 전망이다.
- 김장철 김장 수요가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에 집중되면서, 실제 배추 구매 시기는 그 이전인 11월 중하순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8〉 금년 가을배추 및 가을무 생산 전망



주: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자료: 통계청.

〈표 9〉 배추, 무 순별 도·소매가격 동향

구분		9월 상	9월 중	9월 하	10월 상	10월 중	10월 하	11월 상	
도매 가격	배추 (원/10kg)	2017	16,348	14,385	12,888	14,563	4,193	3,428	4,153
		2016	20,063	17,608	18,473	11,191	7,897	5,926	6,295
		평년	9,102	8,968	7,947	6,773	5,000	4,369	4,634
	무 (원/18kg)	2017	16,704	14,341	11,105	15,791	7,042	6,185	7,356
		2016	21,326	22,093	20,843	27,866	24,725	23,625	14,601
		평년	10,925	12,106	13,146	12,251	11,479	11,282	10,193
소매 가격	배추 (원/10kg)	2017	20,649	19,644	18,444	17,262	12,648	8,973	7,905
		2016	23,976	23,940	23,238	20,463	15,147	11,469	9,873
		평년	12,148	11,992	11,435	10,440	9,013	8,197	7,470
	무 (원/18kg)	2017	29,360	27,410	25,070	22,420	19,520	15,600	13,610
		2016	30,220	29,680	29,440	31,910	34,260	33,670	27,260
		평년	19,313	18,823	18,780	19,247	18,827	18,253	17,300

주: 11월 상순 가격은 11월 1~8일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표 10〉 금년 가을배추 및 가을무 순별 출하량 추정

단위: 톤, %

구분	11월 상	11월 중	11월 하	12월 상	12월 중	12월 하	합계
가을배추	183,777 (16.4)	271,530 (24.3)	279,340 (25.0)	180,548 (16.1)	110,266 (9.9)	93,371 (8.3)	1,118,832 (100.0)
가을무	101,270 (21.0)	123,161 (25.6)	118,021 (24.5)	97,100 (20.2)	33,387 (6.9)	8,625 (1.8)	481,564 (100.0)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2.3. 김장철 김장 부재료 가격 전망

□ 금년 김장철 건고추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낮았던 작년보다 높으나, 10월 대비 약세 전망

- 2017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25% 이상 감소한 6만 3천 톤 내외로, 금년 김장철 화건 고추 상품 600g 도매가격은 전년(5,800원)과 평년 동기(7,800원)보다 높으나, 정부비축물량 방출로 10월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금년 김장철 깐마늘 가격은 재고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고, 평년과 10월 대비 상승 전망

- 2017년산 난지형 마늘 국내산 재고량은 평년보다 5% 적으나, 전년보다 9% 많은 8만 톤으로, 금년 김장철 깐마늘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으나, 평년과 10월보다는 높은 6,700원/kg 내외로 전망됨.

□ 금년 김장철 대파 가격은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고, 10월 대비 약보합세 전망

- 금년 대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7% 많아, 도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보다 낮고 10월 대비 약보합세인 1,300원/kg 내외로 전망됨.

□ 금년 김장 부재료(채소류) 도매시장 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전망

- 알타리무 가격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늘어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쪽파, 청갯, 미나리 가격은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많아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생강 가격은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높으나, 평년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 금년 김장용 부재료(수산물) 도매시장 가격은 새우젓을 제외하고 평년보다 낮을 전망

- 새우젓 가격은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작년의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 멸치젓 가격은 건멸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멸치젓 생산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높으나,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굴 가격은 출하량이 작년과 비슷하나, 식품안전성 문제로 국내 소비가 감소하여 작년 및 평년보다 다소 낮을 전망이다.
- 천일염 가격은 생산 시기의 적절한 기상으로 생산량이 많아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표 11〉 김장철 김장 부재료 도매시장 가격동향 및 전망

단위: 원/kg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년
채소류	알타리무	1,578	1,142	1,014	1,321	1,713	750원 내외	1,347
	대파	2,008	1,379	882	1,820	2,332	1,300원 내외	1,736
	쪽파	3,440	2,852	2,096	2,902	6,038	2,300원 내외	3,065
	생강	4,663	3,003	5,250	4,402	1,893	3,000원 내외	4,023
	청갓	3,551	1,979	1,906	1,704	3,793	1,500원 내외	2,479
	미나리	3,092	3,175	3,190	3,426	3,653	3,000원 내외	3,264
수산물	새우젓 (추젓)	6,322	6,245	4,000	5,720	11,000	11,000원 내외	6,096
	멸치젓	2,587	4,583	4,167	2,150	1,600	2,300원 내외	2,968
	굴	10,640	11,481	11,278	12,504	11,487	11,000원 내외	11,415
	천일염	833	1,100	1,000	667	500	400원 내외	833

주: 금년 김장용 주요 부재료 가격은 과거 김장철 가격 패턴과 시장동향을 조사 및 분석한 추정치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모니터 조사치(10월 29일).

03 | 시사점

2017년 김장철 배추·무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대책 필요, 절임배추 산업 안정화 노력

- 금년 김장철 배추, 무 공급량은 작년보다 30% 내외 증가로 과잉 우려에 따른 적절한 김장철 수급안정 대책 실시 계획
 - 금년 김장비용은 주원료인 가을배추, 무 생산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김장철 원재료 원료 비중: 배추(60%), 무(16), 천일염(7), 건고추(2), 마늘(1), 그 외 재료는 각각 2% 내외 차지
 - 김장배추, 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가격 하락이 전망되나, 수요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은 국내 김치 소비량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가을배추, 무를 중심으로 시장격리 또는 자율 폐기 등의 수급안정대책이 실시되어야 함.
 - 특히 차기 작형인 월동배추, 무가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11월에 수급대책을 집중 할 필요가 있음.
- 금년 김장철 김치 조달형태는 직접 담그는 비중이 65%로 가장 높았고, 지인을 통한 구매나 무료 조달이 22%, 시판김치 구매가 13%로 나타남.
 - 직접 담그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김치 원재료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중시하고, 가족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임.
 -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가구원수가 많고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직접 담그는 비중이 높고,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시판김치를 사먹는 비중이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접 김장을 하는 가구의 52%가 절임배추를 선호하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식품 조리에서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김장철 절임배추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절임 과정이 주택에 비해 어려워 절임배추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최근 들어 절임배추의 세척이나 절임 과정에서의 위생 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절임배추 확산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절임배추 또는 고춧가루나 다진마늘 형태의 소비를 선호하는 김장철 가구 소비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절임이나 세척 등의 단순 가공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 개인 단위의 절임배추 생산보다는 규모화·조직화된 절임시설을 통해 균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절임배추의 규모화를 통해 절임현황에 대한 통계를 명확히 하고, 가격 형성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함.
- 또한 택배 형태로 주로 구매되는 절임배추 특성상 포장 등의 유통시스템을 개선하여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KREI 농정포커스 v

2017년

-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호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해진, 정학균)
-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 제151호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 제150호 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중현)
-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 제147호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 제146호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 제145호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
- 제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 제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2016년

- 제140호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 제13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호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해진, 김창길)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